

대순진리의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관한 연구

李京源*

目次

I. 머리말	
II.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에 대한 이론적 기초	3) 도교의 선경론
1.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의 의미	4) 천도교의 지상천국론
1) 이상실현으로서의 지상천국	5) 원불교의 용화회상론
2) 새로운 우주변화로서의 세계개벽	III. 대순진리의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론
2. 제 종교의 이상세계론	1. 선천세계의 한계와 천지공사
1) 유교의 대동사회론	2. 지상천국으로서의 후천선경
2) 불교의 극락정토론	3. 세계개벽을 통한 이상사회실현
	IV. 맺음말

I. 머리말

대순진리는 강세하신 구천상제의 유지(遺志)를 계승하고 50년 공부종필로써 전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법(遺法)을 숭신(崇信)하는 대순진리회 종단의 교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대순진리회 요람』(대순진리회 교무부 발간, 1969) 교리개요에 보면 내용상 크게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종지와 신조 목적이 그것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익히 선행된 논문을 통해 다룬 바가 있다. 본 고에서는 교리개요의 최종적인 주제이자 가장 궁극적인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을 연구 검토해보기로 한다.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대순진리의 교리에 있어서 목적으로 제시된 항목이다. 목적은 크게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무자기-정신개벽이며, 둘째는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이며, 셋째는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이다. 이 세가지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세계 실현을 위한 목적을 나타낸다. 정신은 인간을 움직이는 무형의 주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은 세계를 구성하는 특수한 존재이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전체세계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목적 전체를 함축하는 개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교리개요가 지향하는 최종적인 이상이 된다고 본다. 이에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를 서술하고 이어서 대순진리의 교학내에서 이해되어지는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에 대한 이론적 기초

1.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의 의미

1) 이상실현으로서의 지상천국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대하여 여기서는 먼저 지상천국이 의미하는 바를 규정해 보기로 한다. 일단 지상(地上)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뜻 그대로 '땅의 위'라는 의미를 지니며 '지면(地面)' '지표(地表)'라는 말과도 서로 통한다. 하지만 지상은 단순히 자연사물로서의 의미만을 뜻하기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중요시되는 상징적인 것으로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여진다. 즉 땅(地)은 인간이 디디고 서있는 현실적 기반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의 현존재를 담보하는 유일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대한 사전적 풀이에는 '이 세상' '현세'라는 뜻이 추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¹⁾

천국(天國)이라는 말은 일단 글자풀이에서 '하늘 나라'를 뜻하고 있는데,

1) 이희승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7

이는 유신론적 종교전통과 관계가 깊다. 동양에서는 특히 기독교적 교리전통과 문화전래를 통해 익숙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²⁾ 그리하여 ‘천당’ ‘낙원’ 등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으로 절대자 하느님이 다스리는 이상세계를 지칭한다고 본다. 이 때 천국은 달리 말하면 천상(天上)의 세계로서 지상(地上)의 세계와 상대를 이루는 곳이다. 유신론적 관념에 의하면 천상은 신(神)이 거주하는 곳으로 무한한 화려함과 복락(福樂)이 갖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지상은 유한성에 얽매인 인간이 사는 곳으로 온갖 고통과 번민이 가득찬 타락된 세계로 묘사된다. 천상과 지상은 비록 엄격한 경계에 의해 구분되지만 현실적 존재인 인간은 항상 천상을 근거로 하여 지상의 모든 가치기준을 확립하고 또 이를 실현하는데서 삶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게 된다.

천국에 관한 유신론적 이론을 몇가지 살펴보면 특히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전통에서의 타계관념으로 중요하다.³⁾ <천국>이라는 말도 kingdom of heaven의 번역이다. 또한 파라다이스(paradise, 페르시아어 pairidaēza에 유래하며, 원의는 ‘둘러싸인 장소’나 ‘동산’이며 ‘에덴동산과도 동일시된다.)나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천국은 신들만의 세계이며 신이 정한 조건에 합치한 자만이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것이 어둠에 사는 인간에 대한 구원이며 해탈이었다. 유대교에서 천국은 기원전 3~2세기에 걸쳐 형성된 관념으로, 신이 정한 율법에 오른 사람의 사후세계라고 생각하였다. 기독교에서는 비록 유대교의 흐름을 이었지만 천국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관념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신약성서』의 저자들에 의해 표출되었다. 즉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원한 고향이며,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와서 거기로 돌아가며 현재도 거기에서 구속주로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본다. 천국의 현재성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3장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며, 미래성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하느님 나라 즉 천국의 완성은 사회발전이나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주도 와 역사에 의해서 도래한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다.⁴⁾ 이슬람에서 천국

2) 「辭海」上「基督教謂神所居曰天國」中華書局

3)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p.1250

4) 최기복 「유교와 서학의 사상적 갈등과 相和의 이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

은 이 세상에서 신앙하고 선행을 한 사람들이 그 보답으로서 사는 것이 허용된 낙원을 말한다. 낙원에서는 감각적으로 아주 풍요롭고 편안한 생활을 보내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기쁨은 신을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천국은 유신론적 전통에서 볼 때 지상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타계 관념으로서 특히 신에 대한 외경의 감정이 위주가 된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등장하는 지상천국은 어떤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 제기된 용어인가. 그것은 한민족의 사고방식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적인 신관의 토대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론으로서, 한민족은 예로부터 하느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풍속이 전해왔거니와⁵⁾ 신의 은총에 의하여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신시(神市)'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살아온 종교적인 민족임을 알 수 있으며,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에서 보듯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나 계급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 하나를 구제한다는 보편적 인간애와 평화정신이 한민족의 이상이며 한민족이 믿는 신의 뜻이라고 한다.⁶⁾ 이러한 정신이 한국불교에 있어서는 불국토의 건설, 유교에 있어서는 조정암의 '태화지역(泰和之域)', 퇴계에 있어서는 '인수지역(仁壽之域)' 그리고 율곡의 '대동세계(大同世界)건설'로 나타났다고 본다.

여기서 한민족의 사고의 원형을 담고 있는 '단군신화'를 다시금 살핀다면, 신시(神市)가 건설되는 곳은 다름 아닌 지상이며,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은 그러한 이상세계를 현실적 세계에서 그대로 이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⁷⁾ 따라서 본 절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지상천국의 의미는 한민족의 전통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초월적인 이상세계가 현실세계와 괴리되지 않고 바로 현실에서 건설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라고 하겠

원 박사학위논문, 1989, p.295

5) 『三國志』魏志東夷傳 夫餘, 高句麗, 濊條 참조.

6) 유승국 「한국인의 神觀」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pp.157~160 참조.

7) 『三國遺事』卷1, 紀異1, 古朝鮮 「...雄率徒三千, 降於太伯山頂[即太伯, 今妙香山.] 神壇樹下,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다. 그리하여 인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세계에 모든 인간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실질적으로 건설함으로서 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인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니, 대순진리에서는 그 고유한 신앙론에 입각하여 그 목적달성의 방법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새로운 우주변화로서의 세계개벽

세계개벽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世界, world)’라고 하는 용어와 ‘개벽(開闢)’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세계’는 원래 불교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술어로서 생물이 생존해서 윤회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산스크리트어의 로카다투(lokadhatu)에 대한 번역어인데, 로카(loka)는 공간을 의미하고 다투(dhatu, laka)는 층(stratum)을 의미한다.⁸⁾ 한역불전(漢譯佛典)에 의하면 세계는 시간의 흐름과 사방팔방 상하의 공간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 때 세(世)는 시간에 해당하며, 계(界)는 공간에 해당한다.⁹⁾ 즉 시·공간을 합쳐서 세계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우주(宇宙, universe)’라는 용어와 서로 통하는 개념이다. 우주라고 할 때의 ‘우(宇)’는 사방(四方) 상하(上下)의 공간적 개념이며, 주(宙)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적 개념을 가리킨다.¹⁰⁾ 좁은 뜻에서의 세계는 하나의 태양계로 보기도 하며, 우주는 이러한 세계가 수없이 많이 모여 이루어진 종합체라고 생각된다. 가장 좁은 뜻으로는 지구(地球)와 같은 뜻이다. 또한 상대성이론에서는 공간의 3차원 및 시간의 1차원으로써 이루어지는 4차원 종합체를 지칭하기도 한다.¹¹⁾ 이상의 뜻을 종합해보면 일단 ‘세계’는 가장 확대된 의미로써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전 우주적인 환경을 뜻한다고 하겠다.

‘개벽’이라는 용어는 앞선 논문에서 익히 다룬 바 있듯이 ‘천지가 처음 열림’이라는 뜻으로 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¹²⁾ 고전(古典)에서 사용된 용례에

8)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8, p.661

9) 『首楞嚴經』大正藏, 밀교부, 19권 「阿難云何名爲衆生世界, 世爲遷流界爲方位, 汝今當知東西南北, 東南西南東北西北上下爲界, 過去未來現在爲世。」

10) 『淮南子』 11. 齊俗訓 「故天之圓也 不得規 地之方也 不得矩 往古來今 謂之宙 四方上下謂之宇 道在其間 而莫知其所」

11)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1992, p.560

12) 줄고 「대순진리의 무자기-정신개벽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3집, 2001, p.195~197 참조.

의하면 ‘역사의 처음’이라는 의미와 ‘무한한 변화과정’을 가리킨다.¹³⁾ 이로써 개혁은 동양의 독특한 순환론적 사관에서 이해되어지는 용어로서 기독교적 종말론과 구별되어진다. 종말론이 ‘유시관(有始觀)적 창조설에 입각해 있다면 개혁은 무시관(無始觀)으로서 ‘인중무과론적 적취설(因中無果論的 積聚說)’ ‘성주괴공설(成住壞空說)’ ‘진급강급설(進級降級說)’ ‘음양상보설(陰陽相補說)’ 등으로 전개되었다고 본다.¹⁴⁾ 즉 개혁의 특징은 크게 작게, 여기 저기서, 그리고 그 어느 과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적 변화(motive process)라는 것이다.¹⁵⁾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것을 우주의 신비와 결부시켜 볼 때 ‘개혁’은 모든 변화에 대한 장엄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세계개혁’의 일차적인 의미를 유추해본다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전 우주적인 환경에 대하여 그 과정적인 변화의 장엄함을 일컫는 것이라고 하겠다.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세계개혁은 이와 같은 의미를 배경으로 하되 그 고유한 신앙에 입각하여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전 우주의 문제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체적 신앙활동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세계개혁에 관한 진정한 이해는 대순진리의 교리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그 사상 내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표방하게 되는 것이다.

2. 제 종교의 이상세계론

1) 유교의 대동사회론

‘유교(儒敎)’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공자(孔子)’를 중심으로 하는 교학체계를 말한다. 유교는 25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동아시아 일대의 나라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사상적으로 여타 동양종교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질을 지닌다. 즉 공자의 중심사상이 되었던 ‘인(仁)’은 유

13) 위의 논문 참조.

14) 유병덕 「근·현대 한국종교사상연구」 마당기획, 2000, p.256

15) 유병덕, 위의 책, p.257 참조

교사상사 전반에 걸쳐서 ‘전덕(全德)’ ‘친애(親愛)’ ‘만물일체(萬物一體)’ ‘심지덕(心之德) 애지리(愛之理)’ 등으로 불리워지면서 인간관계의 윤리도덕을 높이 부르짖어 왔던 것이다.¹⁶⁾ 이에 따라 유교는 서양의 유신론적 종교와 비교해 볼 때 신(神)중심의 종교라기 보다는 인간중심의 종교라고 할 수 있으며, 윤리도덕을 기반으로 한 현세적 가치 지향의 특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렇기 때문에 사회·정치에 대한 참여의식이 강하고 도덕을 바탕으로 한 이상국가건설을 지상목표로 삼기도 한다.

유교의 이상세계는 곧 인간 상호간의 관계성에 기초를 둔 도덕적 이상이 실현된 사회를 뜻한다고 본다. 이러한 이념이 나타나 있는 전거(典據)로서는 『예기(禮記)』 「예운편(禮運篇)」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고대 요·순(堯舜)시대를 동경하면서 대도(大道)가 실현된 이상사회를 ‘대동(大同)’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평을 이룬다. 어진 자나 능력 있는 자를 뽑고 신의를 가르치고 화목을 닦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유독 자기의 아버지만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들로 하여금 안락하게 삶을 마칠 수 있게 하고, 건장한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들은 잘 자랄 수 있게 하며, 홀아비와 과부와 고아와 자식 없는 늙은이와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보살피게 한다. 남자는 자신의 직분을 지니며, 여자는 시집갈 곳이 있다. 재화가 땅에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사사로이 저장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힘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 쓰지는 않는다. 이리하여 간사한 모의는 막혀서 일어나지 않고 절도나 난적(亂賊)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을 열어놓고도 닫지 않으니, 이를 일러 대동(大同)이라고 한다.¹⁸⁾

윗 글에서 보면 대동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평등 그리고 실업자가 없으며, 사회복지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사회를 말한다. 또한 인륜(人倫)이 실현

16) 졸고 「다산 정약용의 仁思想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3, pp.8~12 참조.

17) 「유학사상」 교재편찬위원회, 성균관대 출판부, 1999, p.10

18) 「禮記」禮運 第九,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 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되어 천하가 한 집안처럼 지내며, 자신의 분수를 알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밝고 건강한 사회이다. 이에 비해 소강(小康)의 사회는 대동(大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차선(次善)의 상태에서 구현되는 사회이다. 즉 '소강'이란 '조금 편안한' 상태로서 인위적으로나마 예의를 존중하고 염치를 알며 상도(常道)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 무질서한 쟁란의 세계와는 구분이 되고 조그만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이다.¹⁹⁾ 일반적으로 대동세계는 쟁란의 세계로부터 이 소강의 세계로 이행된 이후에 실현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²⁰⁾ 대동사상은 이후 많은 사상가들에 의해 계승되었으니, 청말 강유위(康有爲)의 『대동서(大同書)』에서 제시된 이념과 근대 손문의 '삼민주의(三民主義)' 그리고 모택동 등은 모두 대동을 이상사회로 여겼다. 한국의 유학자에 있어서도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는 위정(爲政)의 공효로서 대동사상을 소개하면서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대동에 두고 이를 집요하게 추구하였다고 본다.²¹⁾

이처럼 유교사상에 나타난 이상세계에 관한 설명은 유교가 지닌 사상적 특질과 무관하지 않다.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논의²²⁾는 논외로 하더라도 유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윤리도덕에 기반을 둔 평등·평화의 사회실현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因子)가 바로 인간이므로 인간 내면의 성실성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이 속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상사회의 실현은 인간 자아의 실현을 내포하며, 인간과 사회의 유기적인 조합을 토대로 세계 전체의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데 유교이론의 특질이 나타난다 하겠다.

19) 위의 책, 「今大道既隱, 天下爲家, 各親其親, 各子其子, 貨力爲己, 大人世及以爲禮, 城郭溝池以爲固. 禮義以爲紀, 以正君臣, 以篤父子, 以睦兄弟, 以和夫婦, 以設制度, 以立田里, 以賢勇知, 以功爲己. 故謀用是作而兵由此起, 禹湯文武成王周公由此其選也. 此六君子者未有不謹於禮者也. 以著其義, 以考其信, 著有過, 刑仁, 講讓, 示民有常. 如有不由此者, 在執者去, 衆以爲殃. 是謂小康。」

20) 「유학사상」 교재편찬위원회, 성균관대 출판부, 1999, p.153

21) 오석원 「유교의 대동사회와 평화정신」 「유교사상연구」 제 11집, 1999, p.66

22) 유교가 종교이나 아니냐에 관한 논의는 현대 종교문화의 성숙과 더불어 활발히 전개되어 나왔다. 오늘날 종교에 관한 정의는 100여가지가 넘고 또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는 기준도 다양하게 제시된다. 하지만 장구한 세월동안 유교가 동양사회 전반에 걸쳐 끼친 사상적 지배력과 영향은 어느 세계 종교 못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할 때 엄연히 종교적 권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불교의 극락정토론

불교는 인도 석가모니의 고유한 깨달음에 기초하여 형성된 종교이다. A.D. 1세기경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한국과 일본 등지에 수입되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의 특징적인 종교문화를 이루었다. 석가모니의 근본교설에는 절대 타자로서의 신(神)이나 어떤 형이상학적 희론(戲論)을 일삼지 않는다. 오직 불타 자신의 인간적 노력과 지성의 결과로 인해 지혜 즉 '깨달음'을 성취하였다고 밝힌다.²³⁾ 이에 불교는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십이연기(十二緣起)' 등의 교리로 모든 중생이 자기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것으로 그 본연의 임무를 지닌다.

B.C. 1세기 이후부터 등장하는 대승불교는 불교사를 화려하고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교를 일약 세계종교로 나아가게 한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²⁴⁾ 여기에는 보살관념의 새로운 출현과 6바라밀의 사상이 강조됨으로써 이전의 불교에 비해 실천적이고 재가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²⁵⁾ 초기 대승경전으로 중요한 것은 반야경(般若經)·법화경(法華經)·십지경(十地經)·무량수경(無量壽經)·유마경(維摩經) 등을 들 수 있다.²⁶⁾

불교의 이상세계에 관한 이론은 주로 대승불교의 흐름에 있어서 나타난 정토(淨土)신앙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선불교(禪佛敎)적 흐름을 자력(自力)신앙으로 명명하는데 대해서 정토신앙은 아미타불(阿彌陀佛)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정토의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력신앙의 특징을 지닌다.²⁷⁾ 이러한 정토사상이 설해있는 주요 경전으로서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상 정토삼부경) '반주삼매경' 등을 들 수 있다.

정토라고 할 때의 토(土)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국토(國土) 불토(佛土) 예토(穢土)라고 하여 부처님 또는 미혹한 인간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이에 따라

23)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Gordon Fraser Gallery Ltd. 1978, p.1

24) 三枝充應 著, 윤종갑 옮김 「불교철학입문」 경서원, 1997, p.70

25) 대승불교와 이전 아비달마 불교의 차이점에 관해서는, 김동화 「불교교리발달사」 김동화전집2, 너허불교학술원, 2001, p.498 참조

26) 교재편찬위원회 「불교학개론」 동국대출판부, 1988, p.108

27) 위의 책, p.183

정(淨)을 동사로 해석하면 오염된 이 세계를 맑히는 것을 것이고, 형용사로 해석하면 보살이 장년(長年)의 수행을 완성하고 드디어 성불하여 만든 청정한 세계를 말한다.²⁸⁾

불교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정토에 관한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연구서를 참조해보면 타방(他方)정토설·영장(靈場)정토설·유심(唯心)정토설·범신론(汎神論)적 정토설등으로 나뉜다.²⁹⁾ 타방정토설은 이 세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방 또는 동방 등의 특정의 방위에 정토가 존재하는 것을 밝히는 것과 십방(十方)에 정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아축불(阿閼佛)의 ‘동방묘희세계(東方妙喜世界)’, 약사불의 ‘동방정유리세계(東方淨留璃世界)’, 석가불의 ‘서방무승정토(西方無勝淨土)’, 아미타불의 ‘서방극락(西方極樂)’은 전자에 속하고 『도사경(兜沙經)』과 『수원십방왕생경(隨願十方往生經)』의 십방정토설은 후자에 속한다. 이외에 미륵보살의 ‘도솔천(兜率天)’도 ‘도솔정토’로 보아 서방 미타정토 신앙과 병행하여 타방정토설의 하나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영장정토설은 생신(生身)의 불 또는 보살이 이전에도 거주하고 또 현재에도 계신다고 믿어지는 영지영장(靈地靈場)을 가지고 정토라고 하는 신앙이다. 관음(觀音)의 영장인 보타락(補陀落)을 보타락정토라고 하는 신앙과 석존이 영년(永年)거주(居住)한 인도 영취산(靈鷲山)을 가지고 영산(靈山)정토(淨土)라고 말하는 것 등이다. 유심정토설은 인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현세를 정토라고 하는 설로서 『유마경(維摩經)』에서 설한 「心清이 佛土清」이라고 하는 설과 『유식론(唯識論)』의 생각을 가지고 유식소변(唯識所變)의 정토를 설하는 것이 있다. 범신론적 정토설은 『화엄경』과 『범망경(梵網經)』에서 설하는 연화장(蓮華藏)세계를 말한다. 연화장 세계라는 것은 비로자나여래의 정토라고 하는 것으로 전 우주가 연화에 쌓여있는 정토라고 하는 생각이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한국불교전통에서 많이 알려진 미륵신앙에서의 정토 세계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특히 미륵 하생신앙에서 일컬어지는 용화세계는

28) 坪井俊映 著, 한보광역 「정토교개론」 흥법원, 1996, pp.16~21 참조

29) 이하는 위의 책, pp.22~42 참조

56억 7천만년 이후 사바세계에 출세하는 미륵의 세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불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대지는 평탄하고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다. 곡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고 갖가지 보배가 수없이 많으며, 마을과 마을이 잇달아 있어 닭우는 소리가 서로 들리나니라. 아름답지 못한 꽃과 나쁜 과일, 시든 나무는 다 씨가 마르고 더러운 것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감미로운 과일나무와 향기롭고 아름다운 풀, 나무들만이 자라느니라. 기후는 온화하고 화창하며, 사계절이 순조로와 백여덟 가지의 질병이 없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도 마음속에만 있을 뿐,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어긋남이 없이 평화롭다. 그래서 만나면 즐거워하고, 착하고 고운 말만 주고받으니, 뜻이 틀리거나 어긋나는 말이 없어서. 율단월세계에 사는 것과 같으니라. 이 때 사바세계의 사람들은 크거나 작거나 다 똑같아서 약간의 차별도 없으며, 남녀 구별없이 대소변을 누려고 하면 땅이 저절로 열렸다가 일이 끝난 뒤에는 다시 합쳐지리라. 그 땅에는 뭇쌀이 저절로 자라나되 껍질이 없고 향과 맛이 매우 좋아 먹기에 힘들지 않다. 금은 보화들이 땅에 흩어져 있어도 욕심내는 사람이 없다. ...또한 사람들의 수명이 매우 길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므로 다 8만 4천세의 수명을 누리며, 여인은 나이 5백세가 된 뒤에 시집을 가게 되리라.³⁰⁾

미륵신앙과 관련된 경전은 보통 6종으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미륵상생경』과 『미륵하생경』, 『미륵대성불경』이다.³¹⁾ 미륵불은 미래불(未來佛) 당래불(當來佛)로서 앞으로 오실 부처님이며 마땅히 오셔야 될 부처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립과 갈등 분열과 혼란과 불신시대에 대자비광명을 비추어 미망의 어둠을 걷어내고 깨달음을 증득케 하여준다는 것이다.³²⁾ 한국에 전래된 미륵신앙은 주로 하생신앙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였다고 본다. 미륵신앙은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민중신앙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조선조에 이르면 더욱 민중적인 속성을 지니게 되어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의 입장에 서서 이상세계의 도래를 기원하면서 당래불로서의 미륵신앙이 민중중심으로 전개되었다.³³⁾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불교의 이상세계에 관한 이론은 미륵경전을 통해

30) 『大正藏』 경집부 14권, 「彌勒下生經」 참조.

31) 이종익·무관 譯 「미륵경전-미래불의 하생」 민족사, 1996, p.131 참조

32) 김삼룡 「미륵신앙의 원류와 전개」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제 6집, 한국사상사학회, 1994, p.12

33) 김삼룡, 위의 글, p.28

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의 근본교설은 언제나 인간의 정신적 깨달음을 위해서 교설하고 있는 바, 극락정도에 관한 어떤 화려한 설명도 결국 깨달은 경지의 완전한 청정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래 공간을 초월하고 형상이 없는 세계를 공간적으로 한정하여 형상이 있는 세계로 묘사한 것은 그만큼 깨달음의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킴으로서 종교적 실천의 대상으로 다가서게 한 것이다.³⁴⁾

3) 도교의 선경론

도교는 중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종교문화의 한 형태이다. 춘추전국시대때 제자백가의 한 일파로서의 도가(道家)와 도교는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굳이 구분한다면 도가(道家)는 노·장(老莊)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철학사상으로 볼 수 있고, 도교(道教)는 신선설을 중심으로 일정한 신앙대상을 지니고 교단으로 발전한 종교적 형태의 하나이다. 도가는 도교의 형성과정에서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는데, 우주의 궁극적 실체를 도(道)로서 파악하는 노자의 「도덕경(道德經)」과 삶의 궁극적 원리를 무위(無爲)로 파악하는 장자의 「남화경」이 도교의 경전으로 수용된 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의 도교는 교단으로서의 도교와 철학사상으로서의 도가를 포함한다.³⁵⁾

도교의 성립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또 많은 사상이(예를 들면 유교와 불교 등) 습합되어 있는 관계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어느 저명한 도교학자의 설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교란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신선설을 중심으로 하여 거기에 도가(道家) 역(易) 음양오행 복서 참위(讖緯) 의학 점성 등의 설과 무속의 신앙을 더하여 불교의 체제나 조직을 모방하여 정리된,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하는 현세이익적인 자연종교」이다.³⁶⁾ 이에 따라 도교의 신앙을 민중도교로서의 성격과 체제나 조직을 가진 성립도교의 성격으로 양분하여 보기도 한다.³⁷⁾

34) 법정 譯 「정도삼부경」 해설, 민족사, 1995, p.162 참조

35) 황준연 「한국사상의 길라잡이」 박영사, 1999, p.163

36) 쿠보노리타다 著, 최준식 譯 「도교사」 분도출판사, 1990, p.55

도교의 이상세계에 관한 논의도 편의상 도가철학적인 설명과 도교경전 내에서의 설명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자 『도덕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이상사회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를 적게 하고 백성을 적게 하여 그로 하여금 수백의 기구들이 있어도 필요 없게끔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멀리 이사가 가지 않게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고, 비록 무기나 군사가 있어도 그것을 진칠 데가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 사람처럼 다시 새끼줄로 묶어 의사를 전달하게 한다. 그곳의 음식을 달게 먹고 그곳의 옷을 아름답게 여기고 기거함을 편안히 여기며 그 풍속을 즐겨한다. 이웃 나라끼리 서로 바라보며 닭과 개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는다.³⁸⁾

윗 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상사회의 특징은 국가간의 분쟁이 없이 무위 자연을 근간으로 하는 작은 공동체 사회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³⁹⁾ 어떠한 문명의 이기에 의존하지도 않고 타국간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자기 생활에 만족할 줄 아는 순수한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도가철학에서의 이상사회론이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사회구성론을 제시했다면 교단 성격의 도교에 나타난 이상세계는 보다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 불로불사하는 ‘신선(神仙)’에 있었으므로 그러한 신선들이 사는 세계(선경 仙境)가 곧 이상세계가 되기 때문이다.⁴⁰⁾ 도교경전에는 범인(凡人)이 선경(仙境)의 모습을 보고 온 후 그 세계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다수 소개되어 있다. 대략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처음 천상에 갔을 때 …노군(老君)을 만나뵈게 되었다. 노군은 어전에서

37) 쿠보노리타다 著, 정순일 역 『도교와 신선의 세계』 법인문화사, 1993, p.21

38) 『道德經』 80장 「小國寡民，使有什佰之器而不用，使民重死而不遠徙。雖有舟輿，無所乘之，雖有甲兵，無所陳之，使人復結繩而用之。甘其食，美其服，安其居，樂其俗。隣國相望，鷄犬之聲相聞，民至老死不相往來」

39)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1999, p.39

40) 줄고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14집, 2002, pp.192~193 참조.

동편을 향하고 앉아있었다. 신비로운 오색의 구름이 어전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고 정원에는 주옥의 나무와 신령스러운 풀이 무성하였으며 그 사이에서 용과 호랑이가 놀고 있었다. 어전의 아름다움은 비할 곳이 없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방의 사방 벽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수백명의 시종들은 대부분이 아름다운 미녀들뿐이었다. 신장이 1장이나 되는 노군은 몸으로부터 광명을 발하고 있었으며 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노군은 아름다운 선녀에게 황금의 상자와 대리석의 잔을 가져오게 하여 불로장수의 신단(神丹)을 잔에 넣어 한알씩 우리 부부에게 먹게 하고...41)

윗 글에 묘사된 신선세계 즉 선경(仙境)은 지상의 현실세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천상의 극락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는 어디까지나 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신선(神仙)들이 모여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이다. 신선의 모습이 불로장생에 도달한 초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만큼 그 세계도 초현실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도교의 이상세계는 도교가 지향하는 신선의 이념이 사회적으로 실현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4) 천도교의 지상천국론

천도교는 구한말에 활동한 최수운을 교조로 하여 최시형 손병희로 이어지는 현대 한국 신종교 교단의 하나이다. 최수운이 득도(得道)하던 시기(1860)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고 본다. 교단의 자료를 참고해 보면, 당시 사회는 부패하고 윤리도덕이 쇠미(衰微)해 있었으며 당쟁과 민란이 성행하였고, 천재(天災)와 미신 도참(圖讖)이 유행하였으며, 서학(西學)이 유입되고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하여 민심이 동요되었다. 국외적으로는 영국 불란서 러시아가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 내에서는 태평천국의 난이 일어나는 등 동양천지가 소용돌이치던 시대였다.⁴²⁾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천도교의 종교사상은 구국(救國)의 염원과 함께 새로운 사회변혁을 부르짖는 이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본래 천도교는 1905년 이후 손병희에 의해 정식 교단으로 출범한 이후의

41) 『列仙全傳』卷1, 『歷世眞仙 體道通鑑』卷4, 沈羲 (쿠보노리타다, 위의 책, p.50 재인용)

42) 천도교 중앙총부 『천도교 백년략사』 미래문화사, 1981, pp.58~64

명칭이지만 그 연원은 최제우의 동학에 두고있었다.⁴³⁾ 따라서 천도교의 이상세계론을 살핀다면 그 이전의 동학사상에 나타난 이상세계에 대한 설명과 그 이후의 천도교 교단에서 제기된 이념을 같이 고찰해야만 한다. 동학사상에 관해서는 최수운이 지은 『동경대전』·『용담유사』의 내용을 참조해 볼 수 있고, 천도교의 사상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발간한 경전과 교리해설서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동학사상에서 제시하는 이상세계는 하느님(上帝)의 조화와 인간의 주체적인 수도(修道)에 의해서 이루어진다.⁴⁴⁾ 그 과정적인 변화를 장엄하게 표현할 때 개혁이라고 한다. 이 때 개혁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선천이후에 전개된 ‘다시 개혁’임을 강조한다.⁴⁵⁾ 이렇게 개혁된 세계는 태평성세(또는 요순성세)가 되고 국태민안을 이룬다는 것이다.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개혁	아닐런가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것이니
개탄지심	두지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하원갑	지내거든	상원갑	호시절에
만고없는	무극대도	이세상에	날것이니
너는또한	연천해서	억조창생	많은백성
태평곡	격양가를	불구에	볼것이니
이세상	무극대도	전지무궁	아닐런가 ⁴⁶⁾

개혁된 세계를 이끄는 주된 이념은 ‘무극대도’이다. 무극대도는 조화주이신 하느님이 최수운에게 계시한 것으로,⁴⁷⁾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지상신선이 되게끔 한다.⁴⁸⁾ 그 사회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도성덕립(道成德立)’과 동귀일체(同歸一體)로서 도덕성이 최고도로 구현되고 사회구성원들간의 결속력이 아주 강한 진리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이다.⁴⁹⁾ 동학사상은 이처럼 최

43)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혜안, 1996, pp.146~153 참조.

44) 『용담유사』 교훈가 「…백천만사 행하기를 조화중에 시켰으니…」 「…그런생각 두지말고 정심수도(正心修道) 하였어라…」

45) 『용담유사』 안심가 「…십이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혁 아닐런가…」

46) 『용담유사』 몽중노소문답가

47) 『동경대전』 포덕문 참조

48) 『용담유사』 교훈가 「…입도한 세상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 될것이니 지상신선 네 아니냐…」

49) 이귀원 「동학의 말세관과 이상사회론」 『지역과 역사』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0, pp.28~33참조. 원전은 「동경대전」 수덕문(修德文)과 『용담유사』 교훈가

수운의 고유한 종교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상세계에 관한 이론은 그 자신이 바라본 당시의 사회적 모순과 민중의 염원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사상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치하에서 활동한 천도교 교단에서는 동학의 교리를 보다 합리적으로 심화시키고 당시의 신문화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 계몽적 성격의 이론을 계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주로 1920년대 이후 천도교의 사상을 주도적으로 해설해왔던 이돈화의 저서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삼대개벽론(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을 주장하면서 지상천국건설이 궁극적인 목적임을 밝혔다.

수운주의(水雲主義)의 목적은 민족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 이상도 아니다. 오직 지상천국에 있다. 지상천국이라는 영원한 이상을 달하기 위하여 과정과 단계에서 민족개벽 사회개벽을 운운하게 되는 것이다. ... 요컨대 지상천국은 어떤 특정한 형식과 조건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인간격(人間格)의 무궁한 이상을 표준한 것이므로 지상천국은 인간격이 발달되면 발달됨에 따라 또한 그 내용이 무궁히 진전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상적이거나 특정한 대답 하나는 지상천국이라 함은 그 시대 시대에서 각각 보다 좋은 신사회를 의미한 것으로 알아둘 것이다.⁵⁰⁾

윗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천국은 그 시대 시대에서 보다 나은 새로운 사회를 지칭한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가 바로 인간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무궁한 인간격을 실현하여 새로운 사회구성을 이룩할 때 비로소 지상천국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천도교의 이상세계에 관한 이론은 개벽과 지상천국건설로 요약된다. 동학에서부터 이어진 천도교의 교리는 시대변화와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상세계에 관해서는 유신론적 타력신앙으로부터 무신론적 사회사상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지상천국이라는 세계는 참된 인간격이 이룩한 새로운 사회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⁵⁰⁾ 이돈화 「新人哲學」 천도교 중앙총부, 1924, pp.162~163

5) 원불교의 용화회상론

원불교는 구한말의 종교가인 소태산 박종빈의 대각(大覺, 1916)을 계기로 하여 해방이후 정식 교명이 선포된 교단이다. 소태산은 그의 대각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開教)표어를 내걸고 불교 이념의 시대화·생활화·대중화에 힘썼다. 여기서 물질개벽이란 과학문명을 의미하고, 정신개벽이란 도덕문명을 의미하였다.⁵¹⁾ 개벽은 이와 같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잘 조화를 이루어 미증유의 대문명세계가 전개될 것을 암시한다.⁵²⁾

그런데 소태산이 바라본 당시의 사회는 물질문명이 고도화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정신의 세력은 쇠약해져갔으므로, 원불교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써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일체 만민을 낙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개교의 동기를 두고 있는 것이다.⁵³⁾

원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개교 당시 소태산의 시대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개조를 표방하고, 나아가 한국불교의 전통적 맥락에서 그 종교적 가치가 실현된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소태산은 당시의 사회상황을 놓고 대병(大病)이 깊어가는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그 병이란 돈만을 중하게 여기며, 남을 원망하며, 의뢰하는 습관을 지니고, 배울 줄 모르고 가르칠 줄 모르며 공익심이 없는 것 등을 말한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하고,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며, 자력 생활을 하며, 배우고, 가르치고, 공익 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서 원불교의 교리를 이루는 사은(四恩) 사요(四要)와 삼학(三學) 팔조(八條)를 통해 널리 세상에 보급됨으로써 다시없는 이상의 천국을 건설하게 된다고 본다.⁵⁴⁾

원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의 실상은 용화회상(龍華會上)으로 묘사되고 있다. 단 소태산은 용화회상이 한국의 미륵신앙의 맥에서 이어져 온 것임을 인지하면서도 그 자신이 지닌 「법신불관」에 입각하여 고유한 해석을 내리

51) 유병덕 「원불교와 한국사회」 시인사, 1986, p.37

52) 유병덕, 위의 책, 같은 페이지.

53) 「원불교교전」 제1 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開教-動機)참조.

54) 「원불교교전」 대중경, 제 2 교의품, 34, 35장 참조.

고 있다.⁵⁵⁾

그 시대에는 인지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虛實)과 진위(眞僞)를 분간하여 저 불상에게 수복(壽福)을 빌고 원하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망라하여 경우와 처지를 따라 모든 공을 심어,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며, 서로서로 생불(生佛)이 되어서로 제도하며, 서로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되며,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고 지정할 것이 없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라,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하리요. 이 회상이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여 승속(僧俗)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게 되리라.⁵⁶⁾

윗 글에 나타난 이상세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불교 정토신앙에서 언급한 내용과 용어상의 맥락은 같지만 강조점은 다소 달라 보인다. 즉 불교정토신앙에서는 실제적이고 신비적인 천국과도 같은 모습을 아주 화려하게 묘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원불교의 용화회상론은 주로 진리적 종교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소태산은 말하기를 「미륵불이라 함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들어나는 것이요, 용화회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곧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지는 것이니라」고 하여 미륵불 출세의 본질과 용화회상 건설의 내용을 새롭게 제시하였다.⁵⁷⁾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원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이 정신적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의 원만한 사회를 구성하였을 때 이룩되는 크게 문명한 도덕세계라고 할 수 있겠다.⁵⁸⁾

55) 소태산이 주창한 진리적 종교의 실상은 바로 법신불의 진리를 각(覺)하는 종교라고 이해된다.(유병덕 「소태산 대종사의 진리적 종교관」 「소태산 대종사와 원불교사상-문산 김삼룡박사 교회기념논문집」 1994, pp14~17)

56)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제14 전망품, 17장

57) 「원불교 교전」 상동, 16장

58) 「원불교 교전」 상동, 19장, 20장, 21장 참조.

Ⅲ. 대순진리의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론

1. 선천세계의 한계와 천지공사

앞에서는 제 종교에서 주장하는 이상세계에 관한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대순진리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지상천국·세계개벽이 여타 종교의 이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대순진리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그 진리적 가르침에 대하여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대순진리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된 것은 강증산 구천상제의 강세(1871)에서 비롯된다. 상제의 강세는 자의(自意)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수많은 신성·불·보살의 신들로부터 호소와 청원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호소와 청원은 인류와 신명계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으며, 강세한 상제의 존재는 중대한 우주사적 사명을 띠는 것으로 인식된다. 여기서 상제가 지닌 사명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세계는 상제의 능력이 아니면 더 이상 치유받을 수 없는 큰 병에 걸려 있었으며, 전 인류를 병마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상제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役事)를 필요로 하였다고 본다. 대순진리의 목적이 제시되기까지는 이렇게 인류가 처했던 역사적 한계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이루어진 상제의 대역사에서 새로운 세계의 비전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다.

상제의 강세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류가 처한 한계상황은 ‘선천(先天)’이라고 하는 우주 역사를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선천’에 대해서는 『전경』에서 단정한 바 있듯이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우고,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서 참혹하게 된」 그 때까지의 역사를 말한다.⁵⁹⁾ ‘상극’에 지배된다 함은 모든 인간관계나 사물들의 관계가 자기 이익을 위해 서로를 해치고자 하는 상태이다. 그 결과 선천의 문제는 인간 사물 모두로 하여금 더 이상 연명(延命)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맞았던 것이며, 이에 따라 상제의 강세와 역사

59) 『전경』 공사 1장 3절

(役事)는 역사적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묵은 하늘은 사람을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꺾절하여 살아 나갈 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뜯어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하시고 사흘 동안 공사를 보셨도다. 상제께서 공사를 끝내시고 가라사대 「간신히 연명은 되어 나가게 하였으되 장정은 배를 채우지 못하여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달하리라」 하셨도다.⁶⁰⁾

상제께서 행한 천지공사는 묵은 하늘 즉 선천의 역사를 새롭게 개조하기 위한 신천지 창조역사이다. 선천의 한계상황을 극복하고 인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끔 하는 데 천지공사의 목적이 드러난다.

천지공사에서 보여진 상제의 의지는 일차적으로 사멸에 빠진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 상제께서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⁶¹⁾고 한 것은 이러한 상제의 구원의지가 잘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인류에 대한 구원은 나아가 영원한 낙원의 세계를 예비하게 되는데, 이는 상제의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의 모습에 잘 나타난다. 그 이상세계는 지상에 건설되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며 선천에서 일찍이 누려보지 못한 새로운 문명의 시대이다. 따라서 목적으로 제시된 지상천국과 세계개혁은 그러한 이상세계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순진리의 궁극적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2. 지상천국으로서의 후천선경

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맞이하게 되는 지상천국의 세계는 '후천선경(後天仙境)'으로도 불리워진다. 여기서 선천과 후천의 갈림길이 되는 역사는

60) 「전경」 공사1장 11절

61) 「전경」 권지 1장 11절

‘천지공사’이다. 선천의 낡은 관습을 폐기하고 새로운 질서와 신문명의 시대로 전환되는 원동력은 오직 상제에게서만 나올 수 있었다. 천지공사 이후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시대를 후천이라고 할 때 상제께서 예시(豫示)한 후천의 문명은 모든 인류가 희망하는 지극한 이상세계를 말해주고 있다.

「전경」 공사편과 예시편에 나타난 후천문명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금 당혜를 신으리라.」 하셨도다.⁶²⁾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⁶³⁾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⁶⁴⁾

위의 구절을 통해 드러난 대순진리의 지상천국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 ‘후천’ ‘지상선경’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곧 후천선경을 지칭한다고 볼 때, 이 세계는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담고 있다.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으며, 도인에게는 햇빛처럼 밝은 등대와 황금으로 된 집이 있다. 모든 사람이 불로불사하며, 옷과 밥이 자동적으로 나오며 국가간의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후천이다. 이로써 후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절대안정과 이상을 누리

62) 「전경」 공사1장 31절.

63) 「전경」 예시 80절.

64) 「전경」 예시 81절.

게 되며 인간의 행복과 자연의 조화가 어우러져 우주세계 전체의 극락을 달성한다고 본다.

대순진리의 지상천국 목적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상과 같은 후천선경의 모습이 화려하게 묘사되고 있는 내용보다는 그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근거에 대한 확신이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제 종교의 이상세계론이 저마다 지닌 사상적 특질 내에서 설명되어졌던 만큼 대순진리의 목적 또한 교리적인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지상천국은 인간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세계도 아니며 인간으로서 넘볼 수 없는 신들만의 세계도 아니다. 인간이 처했던 선천의 위기로부터 구제창생을 위해 강림한 상제께서 직접 제작해내는 세계이다. 천지공사는 바로 그 제작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실(史實)으로써 전해오는 실제상황을 말한다. 그리하여 대순진리는 그 위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천지공사'를 행하신 분이 구천상제이며, 구한말에 탄강한 강증산이 바로 그 구천상제이심을 상기하는데서 궁극적인 신앙의 토대가 놓여지고 있다 하겠다.

3. 세계개벽을 통한 이상사회실현

지상천국, 즉 후천선경의 건설은 신비적이고 불가시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가치실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행해진 천지공사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인류 역사를 어느 순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후천이라는 이상세계를 맞이하게끔 변화를 주도한다. '천지공사'라는 단어에서 보여지듯이 그 변화는 전 우주적이며 일정한 지향점을 갖는다. 우주는 천지이고 천지는 곧 세계이므로 '세계개벽'은 이러한 우주적 변화를 지칭하고 있다. 상제의 언표(言表)에서 나타난 개벽의 의의는 천지공사로 인해 주어지는 지상천국이 대국적(大局的)이며 창조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삼계공사는 곧 천·지·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다.⁶⁵⁾

윗 글에서 볼 때 개혁의 대상은 천·지·인이며 이는 전 우주적인 범위를 의미한다. 또한 개혁이 오직 상제의 권능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전제할 때 그 대역사(大役事)는 상제만이 행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작업임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이 천지공사로부터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역사의 대국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 변화의 장엄함은 '무극대운(無極大運)'으로 불리워지기도 하며 '천지공정(天地公庭)'으로 묘사되기도 한다.⁶⁵⁾

그렇다면 개혁은 내용상으로 어떤 변화를 수반하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원을 지향한다. 상제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혁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고 하였다.⁶⁶⁾ 즉 선천의 세계는 지기가 통일되지 못하여 인류가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는 사회였다. 또한 선천은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던 시대이다.⁶⁷⁾ 이로써 개혁은 그 속에 쌓인 원한을 전면적으로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적인 변화를 담는다.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도수(天地度數)를 조정하는 일은 그러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상제만의 고유한 능력이 된다. 「전경」 「공사」 편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바로 이러한 개혁적인 변화의 내용을 다각도에서 조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어서 해원을 위주로 하여 진행되는 과정적인 변화로서의 개혁은 궁극적인 견지에서 전 우주적인 성숙과 복된 완성을 지향한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65) 「전경」 예시 5절

66) 「전경」 예시 17절

67) 「전경」 공사 3장 5절

68) 「전경」 예시 8절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⁶⁹⁾

여기서 개혁은 만물의 성숙이며 참된 가치실현이다. 참된 자와 거짓된 자는 성숙과 멸망의 기로에서 나뉘어지며 의(義)와 불의(不義)가 판가름나는 순간이 바로 개혁이다. 그리하여 가을의 결실과도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어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하며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는 것으로 천지 만물은 성공을 거두게 된다. 세계개혁은 이와 같이 천지만물의 성공이면서 그러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전 우주적인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세계개혁이 됨으로써 모든 불의는 제거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니 인류가 원하는 이상사회는 이로써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세계개혁은 지상천국건설과 관련하여 일정한 과정과 실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천국은 천지공사의 결과 맞이하게 되는 이상세계 그 자체이며 세계개혁은 그러한 이상세계로 이어나가는 과정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앞서서 고찰한 바 있는 무자기-정신개혁,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도 또한 그 궁극적인 이상을 제시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과정을 아울러 제시한 것으로 본다. 대순진리의 목적은 이 세 가지의 상호관계를 통해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인 완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신앙과 수도의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IV. 맺음말

인류가 맞이한 21세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변화도 내포하지만 특히 문명 또는 문화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세계사적인 전환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전면적인 것으로 내다본다. 문명간의 충돌이나 공존에 관한 이론은 일단 문명 상호간의 만남이

69) 「전경」 예시 30절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문명간의 만남은 충돌이 되건 공존이 되건 상호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명건설에 촉진제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세계는 이러한 새로운 문명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약의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서에서 살핀 대순진리의 교의는 미래의 인류사회에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신앙의 대상에서부터 종지 신조 목적으로 이어지는 교리체계는 대순진리가 표방하는 21세기 인류사회의 새로운 이념을 담고 있다. 종지에서는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신조에서는 신앙과 실천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목적에서는 그 지향하는 바의 도달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조정산 도주의 50년 공부 종필로써 전하신 것으로 현대종단인 대순진리회에 계승되어 온 것이다. 앞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지에서 언급한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인류의 새로운 철학적 사고로 자리잡을 수 있고 신인조화는 새로운 종교문명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은 인류사회의 새로운 윤리를 제공하며 도통진경은 새로운 이상사회를 묘사한다. 인류생활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획기적인 전환은 역사적으로 '천지공사'라고 하는 절대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종지는 천지공사의 내용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어서 신조는 종지에서 제시된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끔 해주는 방법론적인 실천을 나타낸다. 사강령에서의 안심·안신·경천·수도는 실천을 위한 주요 행동강령이 되고, 삼요체에서의 성·경·신은 내면적인 수양의 자세를 강조하는 용어이다. 목적에서 제시된 세가지 항목은 종지와 신조가 결부되어 나타나는 인간과 세계의 궁극적인 경지를 나타낸다. 무자기-정신개벽에서는 인간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정신의 참된 경지를 나타내며,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이 화합된 전인적인 인간의 완성을 말하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서는 이 세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설정하고 있다. 이로써 대순진리는 인간과 세계의 총체적인 완성을 위해 그 독립된 사상체계를 보여준다 하겠다.

비록 본서의 연구가 미비하여 대순진리가 지닌 사상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과오를 통감하지만 유관 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로 인해 그 참

된 가치가 밝혀지리라 여긴다. 참된 진리는 아무리 덮어두려고 해도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21세기는 바로 구천상제께서 선포하신 대순진리가 그 본연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세계의 모든 인류가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일찍이 상제께서 예시한 천하한 집안과 영원한 평화의 세계는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다.